

생운 zola 잘 가르치는

1타 같은 N타

Zola 생운 1

<개념의 모든 것>

II. 문제 교재

오르비 클래스 교재(<https://class.orbi.kr/>)

교재 구성의 ‘특이’ 사항과 Zola의 의도

Zola 생운 1의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 자료 교재

II. 문제 교재

각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I. 여러분이 챙겨가야 할 교재는 《자료 교재》입니다.

n회독 하십시오! Zola의 자랑거리이자 현강생(특히 고4 이상)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료집입니다. 현 교육과정의 5종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물론이거니와 13년부터 시작된 생운의 교과서, 평가원 및 연계교재(ebs 수특과 수완) 자료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원전과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적절한 논문이나 대학 교재들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와 함께 다양한 연습 문제들을 실었는데, 여기 실린 문제들은 중급 이상의 난이도들입니다(최상급 다수). 그래서 반드시 개념 공부(백지 복습) 후에 문제를 풀고, 처음 풀 때는 문제에 답을 표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연습장에 답을 표시하든, 여백에 표시하든 하세요). 최소 2번 이상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 주: 교과서 자료를 언급할 때 현행 교육과정(15 개정)은 교과서 출판사 ‘만’ 언급하였고,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 출판사-해당 교육과정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예) 비상교육 → 15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

비상교육-09개정 → 09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09 개정은 16학년도~20학년도까지)

II. 《문제 교재》는 활용도가 높은 평가원 기출들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평가원 기출입니다. 시중의 교재들을 보면 사실 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비추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좋은 문제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입니다. 여기에 학습에 도움될 만한 교육청 문제들과 ebs 및 사설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을 연습시키기 위해 ‘주관식’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들만으로도 시중의 기출 문제집 1권 분량이 됩니다(350~400문항).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량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언급한 자료 부분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기본과 심화 모두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III. 개념 교재는?

Zola가 제공하는 개념 교재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필기 노트가 개념 교재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개념 정리 부분에 별표나 밑줄을 긋고 외우는 것으로 개념 공부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참고서(ebs 포함)를 n회독을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개념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개념 정리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교재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념 노트를 만드세요. 만드는 법은 탐구 공부법 안내 인강인 ‘망하는 생운, 성공하는 생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의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것을 수능 때까지 백지복습 및 n회독 하시길 바랍니다.

Zola의 교재가 그리고 강의가 올해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공+즐공=대박!!!

교재 목차

* 번호: 대단원-순서

예) 1-1 ⇒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주제라는 의미임.

1-1: 윤리학의 구분 ---- 5

1-2: 동양 윤리+자연관 ---- 7

1-3: 서양 윤리 ---- 16

1-4: 도덕적 추론 ---- 26

1-5: 토론, 말의 자유론 ---- 28

2-1: 죽음관 ---- 31

2-2: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자살, 동물 실험) ---- 34

2-3: 성•사랑 ---- 40

2-4: 결혼과 가족의 윤리 ---- 42

3-1: 직업 사상가 ---- 47

3-2: 직업 윤리(기업, 전문직, 공직자) ---- 50

3-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니부어) ---- 52

3-4: 사회 정의의 분류(아리스토텔레스) ---- 58

3-5: 분배 정의 ---- 59

3-6: 소수자 우대 정책(차별과 역차별) ---- 68

3-7: 교정 정의(형벌, 사형제) ---- 69

3-8: 국가와 시민의 윤리(1) 동·서양의 국가관 ---- 77

3-9: 국가와 시민의 윤리(2) 시민 불복종 ---- 84

4-1: 과학기술과 윤리 ---- 93

4-2: 정보윤리+매체윤리 ---- 95

4-3: 자연과 윤리(서양의 자연관) ---- 98

4-4: 환경 문제와 미래세대 ---- 116

5-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 118

5-2: 의식주 윤리 ---- 122

5-3: 다문화 윤리 ---- 124

5-4: 종교와 윤리 ---- 126

6-1: 갈등과 소통, 민족 통합 ---- 130

6-2: 국제관계와 국제분쟁 ---- 133

6-3: 국제 평화와 정의 전쟁 ---- 136

6-4: 세계화와 해외 원조 ---- 141

zola amazing 답 ---- 148

3-9: 국가와 시민의 윤리(2) 시민 불복종

227)[17-6-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 ① 갑은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 ③ 을은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공동체의 정의감을 불복종 정당화의 최종 근거로 본다.
- ⑤ 갑, 을은 불복종을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행위로 본다.

228)[17-수능-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시민은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을: 시민들의 부정직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보기>

- ㄱ. 갑: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ㄴ.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 ㄷ. 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직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 ㄹ. 갑, 을: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29)[18-수능-3]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정의롭지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 ①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인가?
- ② 시민 불복종의 의도는 동료 시민들에게 공표되어야 하는가?
- ③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 행위인가?
- ④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 ⑤ 시민 불복종은 어떠한 합법적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 행해져야 하는가?

230)[19-9-1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보기>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1)[19-수능-18]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폭력으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 ㄴ.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 행위이다.
- ㄹ. 민주적 정부의 법도 부정의하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2)[20-수능-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체제의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 ①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 ②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 ③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 ④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 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233)[21-6-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는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 ② 갑: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사회적 이익과 해악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을: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234)[21-수능-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을: 특정한 법이 다수의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하면 이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법은 굴종이나 반항을 초래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 ② 갑: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은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
- ④ 을: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235)[22-9-1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립니다.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보기>

- ㄱ. 갑: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ㄴ. 갑: 매우 부정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 ㄷ. 을: 시민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6)[23-9-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해당 문제를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을: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숙고를 강요한다. 이는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기에 정치적 행위가 된다.

<보기>

- ㄱ. 갑: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ㄴ. 을: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가능하다.
 ㄷ. 을: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
 ㄹ.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7)[23-수능-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게서만 일어난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에 미칠 전체적인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아니요" --> C{C} A -- "예" --> B{B} B -- "예" --> J1[갑의 입장] C -- "예" --> J2[을의 입장] </pre>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보기>

- ㄱ. A: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ㄴ. B: 시민 불복종이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는가?
 ㄷ. B: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가?
 ㄹ. C: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8)[22-7교-14,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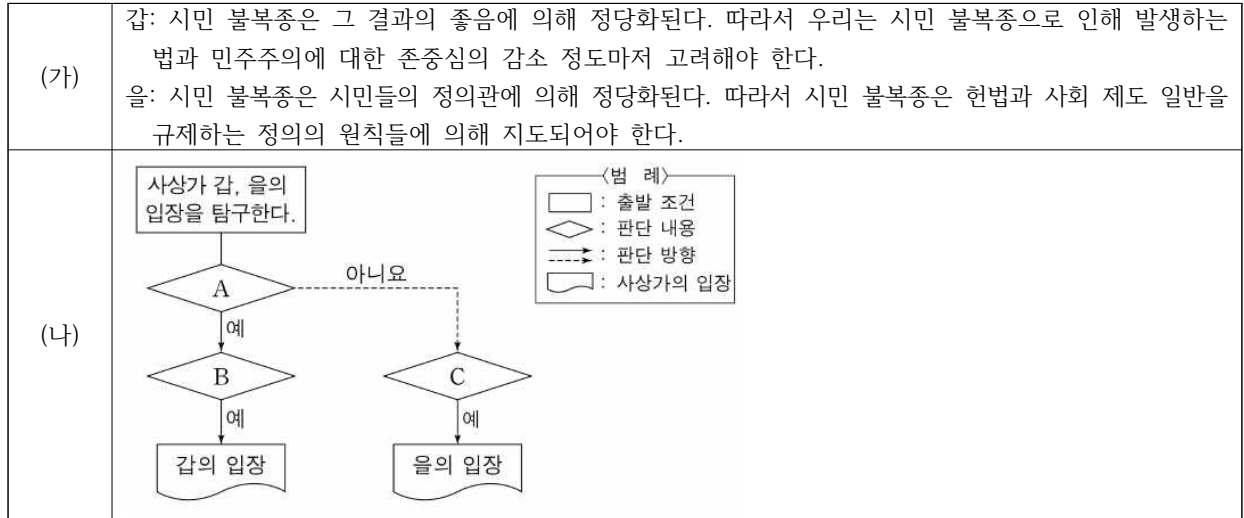
☞ Zola 바나나와 개념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의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으로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수용해야 한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모든 부정한 법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ㄷ.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한 양심적 신념의 표현이다.
 ㄹ.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의도하는 공개적인 행위이다.

239)[24-6-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 ㄴ. B: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 ㄷ. C: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 ㄹ. C: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허용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40)[24-9-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이때,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부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 ②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 ③ 안정적인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 ④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⑤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이다.

241)[24-수능-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시민 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 ㄴ.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 ㄷ.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42)[25-수능-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 ①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②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없다.
- ④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된다.
- ⑤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43)[19-7교-3]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은 것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게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 아니면 반항을 일으킵니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 ③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
- ④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때 폭력적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
- ⑤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244)[20-9-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
 을: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보기>

- ㄱ.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
- ㄴ. 갑: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ㄷ. 을: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Zola [20-9-7]에 대한 Zola식 해설이 다음 쪽에 있으니 참고하셈!

☞ Zola for [20-9-7](출처: Zola 분석서)

(1) ㄱ, ㄴ 틀린 분들아.....시민 불복종의 '근거(조건)'와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 ㄱ, ㄴ 선지를 보자. 시민 불복종의 '근거(조건)'인지, '대상'인지 확인해 봐! 솔직히 바나나 선지임!

ㄱ.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

⇒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법이나 정책임.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이 곧 시민 불복종의 '대상'임.

⇒ [제시문] 체제의 합법성 인정.

[지식] 여기서 말하는 정의로운 체제 혹은 입헌 민주주의 체제임. 그러면 시민 불복종은 입헌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임. 따라서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지 않나?

☞ Zola (1) 이 선지에서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이라는 부분을 '위법행위'로 이해한 분들이 있음. 일단 개념이 잘못된 건데, 위법 행위로 오해했다고 해서 '이번(이 문제에만 해당할 수 있음)' 문제를 틀린다면 님은 바나나일 가능성이 높음. 단 개념 바나나라기 보다는 문제 바나나임. 구체적인 얘기는 개념 수업에서 다름.(여기서는 생략. 중요한 것은 문제 풀이 tip이 아니기 때문임.)

(2) 생운의 힘든 점은 의외의 곳에서 의문사 당한다는 것임. 님들은 지금 '위헌'과 '위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을 '위법'이라고 하는 것임. 이건 국어 어휘력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사회일 수도 있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회에서 배움. 단, 님들의 기억 속엔 없음. 그 뿐임. 사전을 찾아라.

- ① 헌법을 위반하다.
- ② 법률을 위반하다.
- ③ 위법이다.
- ④ 위헌이다.

적어도 위의 ③, ④는 찾아보시길..... 답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임.

Q 헌법과 법률의 차이점이 뭔가요?

중3 학생입니다.

사회 공부하다 보면 헌법과 법률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네요.

어떤건 헌법으로 정하고

어떤건 법률로 정하고..

잘 구별을 못하겠네요.

↳ 네이버 지식인에서....

Q 100 헌법과 법률의 차이

헌법과 법률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 헌법

비공개 · 2018.08.27 · 조회수 1,447

↳ 네이버 지식인에서....

ㄴ.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임. 다시 말해 정의 원칙은 '대상'이 아님.

[참고] 19-9-19(답은 알아서 하셈! 기출 문제의 답을 묻지 말아 주셈..ㅏㅏ..기출이잖아!)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보 기>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아래 해설은 19-9평 Zola 해설의 일부임. 인터넷 검색하면 자료 올라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음.

<https://orbi.kr/00018344238>

참고로 ㄹ은 개념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모순됨.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원초적 입장에 합의한 것이 '정의의 원칙' 임. 시민 불복종의 '대상' 은 부정의임. 그런데 선지는 합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 대상이라고 하였음. 그렇다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부정의=합의 원칙=정의의 원칙' 이 됨. 그리고 이것을 줄이면 '정의=부정의' 라는 말인데.....What(Who) are you????????? ↓

하나 더. 시민 불복종의 '대상' 이야! 시민 불복종의 '주체' 도 아니고, '방법' 도 아니고 '대상' 임!↓

(2) ㄹ.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위 선지에서 시민 불복종이 위법은 맞지만 '권리'인가에 대해 고민한 약 10%의 바나나들아. 솔직히 말해 봐라. 너네들 교과서 한 번도 본 적 없지?

[천재교과서]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자유권의 확장으로서 이해한다면 그것을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당화 논리가 더 나아가간다면, 명백히 불의한 법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비상교육] (1)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체제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나 정책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저항권은 민주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유린하는 체제나 정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민 불복종은 '헌법 내적 저항권' 또는 '작은 저항권'이라고도 한다.

(2)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악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교학사] 소로: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때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이다.

zola amazing 답 + 간단 설명

[주의] 아래에

50%	28%	8%	4%	9%
-----	-----	----	----	----

와 같이 제시된 것은 선지 ①~⑤의 정·오답률(메가스터디 공개 자료)임. 단, 필요한 경우에는 ebsi 통계와 종로 내부 통계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문항 분석할 때 참고하시길 바람. 오답률이 15% 넘어가는 선지들은 주의깊게 살펴보고 10%보다 낮은 선지들은 별도의 분석 필요없이 가볍게 넘어가도 됨.

1) ③	2%	2%	91%	3%	2%
2) ⑤	5%	9%	8%	4%	74%
3) ②	3%	87%	3%	3%	4%
4) ③	2%	2%	92%	2%	2%
5) ③	9%	5%	72%	6%	8%
6) ④	2%	2%	1%	93%	1%
7) ④	1%	1%	2%	95%	2%

8) ㄱ, ㄴ, ㄹ

☞ Zola = 을 놓치면 분류법 다시 확인!

(가) 규범 실천, (나)는 규범 이론. 따라서 두 입장 모두 규범(=)임!!

9) ⑤	2%	5%	2%	9%	80%
10) ③	5%	7%	68%	4%	16%
11) ①	80%	3%	10%	3%	4%
12) ④	9%	6%	6%	76%	3%
13) ①	89%	2%	4%	3%	2%
14) ②	22%	43%	16%	13%	5%

☞ Zola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도가 제시문임. 이 제시문이 왜 도가인지는 개념 강의와 자료 교재에서 설명하였음.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선지 때문이 아니라 제시문 때문임.

② '욕심을 버림'이나 '도를 따름'은 동양 사상 모두에 해당 가능함. '소박'이라는 것에서 도가임을 확정할 수 있음.

15) ②	1%	79%	18%	0%	2%
16) ④	2%	1%	6%	88%	2%
17) ④	15%	2%	2%	80%	1%
18) ①	88%	2%	3%	3%	4%
19) ④	2%	2%	13%	77%	6%
20) ①	83%	3%	4%	9%	1%
21) ④	6%	14%	7%	69%	4%

☞ Zola 제시문 '도가'임. 분별하지 않는다는 제시문에서 읽어내면 됨.

22) ①	81%	3%	6%	6%	4%
23) ①	26%	4%	59%	6%	5%

☞ Zola 제시문 '도가'임. 이 문제의 제시문은 7년 후 23-수능에서 바나나들을 완전 저격했음.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동양 윤리는 제시문을 가지고 우리를 저격하니 우리들 속에 있는 바나나를 Zola 강의를 들으면서 제거하도록 수양(?)해야 함^^

24) ①	90%	2%	6%	1%	1%
25) ③	4%	13%	75%	4%	4%
26) ③	2%	3%	82%	12%	2%
27) ③	3%	2%	87%	7%	1%
28) ②	1%	88%	4%	2%	4%
29) ③	5%	4%	76%	11%	4%
30) ⑤	3%	7%	7%	3%	80%

31) ①	31%	50%	2%	9%	8%
-------	-----	-----	----	----	----

☞ Zola (1) 선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 제시문을 유가로 착각해서 틀렸음. 갑 제시문이 왜 유가가 아니라 도가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임. Zola는 ‘anti 유가’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고, 그 방법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음. 이래는 수능 끝나고 만점 받았다면서 어느 분이 쪽지로 보낸 내용 중 일부입니다.

2번문제에서 갑의 입장을 도가가 아닌 유교로 착각한 학생들이 많아서 정답률이 20프로밖에 안 되던데

18분 전

선생님이 도가를 anti유가라고 설명해주신 덕분에 안 낙인 것 같아요...이지x 김종x 강의에는 절대 안 나오는 내용...

(ebs 기준으로 정답률이 20%대임)

(2) 이 문제 틀린 분들은 바나나 제거 특강(Zola 생운 O)에서 강조했던 기출 바나나가 되면 안 된다는 다시 한 번 새겨 들으셔야 함. 참고로 갑 제시문은 기출 제시문이 재활용된 것입니다.

32) ④	2%	22%	3%	67%	5%
-------	----	-----	----	-----	----

33) ①	78%	10%	5%	5%	2%
-------	-----	-----	----	----	----

34) ①	49%	9%	8%	11%	22%
-------	-----	----	----	-----	-----

☞ Zola 이거 틀린 분들은 반성해야 함. ① <수오의 마음→사단→선한 본성→형성XXX>로 전개되는 지식이 없다는 것인데, 6평이나 9평이 아닌 수능장에서 이 정도 지식이 없다는 것은 아쉽네요. ⑤ 동양 윤리의 공통된 선지임.

35) ②

☞ Zola 선지 ②와 ⑤ 오답률이 높았음. 전체적으로도 정답률은 50%인 문제였음.

36) ②

37) ④	2%	10%	6%	77%	5%
-------	----	-----	----	-----	----

☞ Zola 기본형 문제인데 의외로 정답률이 낮아서(??) 놀란 문제임. 생운이면 몰라도 윤사인데 정답률이 80%가 안 되는 것은 왜일까? 사상이 필요없고 사상으로 풀면 됨. (갑은 공자, 을은 노자임)

[참고] 禮樂征伐(예악정벌): 예악은 문화적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고, 정벌은 무력으로 난신역적을 토벌하는 것

38) ②	2%	75%	2%	1%	21%
-------	----	-----	----	----	-----

☞ Zola 1. 선지 ⑤를 선택한 분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하였음. (1) 개념 실수, (2) 독해 실수. 독해에 대한 것은 Zola 생운 O(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다루었음.

☞ Zola 2. 제자료 교재에 실려 있는 벤담 제시문임. 단,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공리주의자이네’ 정도로 해서 풀면 됩니다.

39) ④	3%	2%	2%	91%	2%
-------	----	----	----	-----	----

40) ⑤	2%	6%	6%	2%	84%
-------	----	----	----	----	-----

☞ Zola 제시문은 ‘규칙’ 공리주의임. 아래 참고

[제시문] 사회에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규칙

공리주의 + 규칙 ⇒ 규칙 공리주의

41) ④	2%	20%	2%	75%	1%
-------	----	-----	----	-----	----

☞ Zola 선지 ②한 바나나 님들아 아래 설명 잘 봐두셈. 참고로 강의에서도 다루었음.

[제시문] 돈이 필요해 장기 이식을 스스로 결정한 행위

[분석] 목적 수단

정리하자면 ‘돈’이 목적이 되고 ‘나(장기)’는 수단이 됨. 이것은 칸트의 정언명령의 형식 중에서 인격성에 어긋남. 따라서 나는 인격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언명령에 따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자율성임.

42) ⑤	2%	7%	7%	1%	83%
-------	----	----	----	----	-----

☞ Zola 제시문 확인. 의무‘에 맞는’과 의무‘이기 때문에(로부터 나온, ~에서 비롯된)’를 구분해야 함.

43) ⑤	4%	2%	2%	2%	90%
-------	----	----	----	----	-----

44) ③	11%	8%	74%	5%	2%
-------	-----	----	-----	----	----

☞ Zola 23학년도 6평 3번 문제와 거의 유사함.

45) ②	5%	84%	2%	6%	2%
-------	----	-----	----	----	----

46) ④	2%	3%	3%	90%	3%
-------	----	----	----	-----	----

☞ Zola ④ 벤담에 의하면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인 차이를 계산할 수 있음. 참고로 ebs 정답률은 78%임. 메가 자료와 차이가 있음.

47) ②	5%	63%	3%	7%	22%
-------	----	-----	----	----	-----

☞ Zola

- 칸트: 행위 그 자체가 옳으니까 행해야 함.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님.
- 공리주의(벤담, 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덕임. 즉 도덕은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수단임.

48) ②

49) ①

☞ Zola ① 칸트: 정직하라는 준칙은 보편화 가능함. 그러나 거짓말하라는 준칙은 보편화 불가능함.

② 칸트: 도덕 법칙은 자연적 경향성과 구별됨.

50) ①

☞ Zola 선지 ②~⑤는 지식적으로 알아두세용~

51) ④

2%	2%	6%	85%	5%
----	----	----	-----	----

52) ⑤

3%	2%	3%	3%	90%
----	----	----	----	-----

☞ Zola 윤사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법'에 대해서는 몰라도 됨. 글고 선지 ②와 ④도 몰라도 됨. 참고로 선지 ④는 독해로 가능함.

53) ①

☞ Zola 가상 연설문을 쓴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님들은 스토아학파를 알기 보다는 자연법 윤리이겠구나를 파악하면 됨. 제시문에서 '자연'과 '의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 됨.

54) ①

64%	8%	3%	6%	18%
-----	----	----	----	-----

☞ Zola 윤사급 문제임. 윤사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Zola 얘기가 맞았음. ㄱ. 인간은 자신의 본성 즉 이성을 잘 실현해야 함.

55) ②

☞ Zola 선지 ①은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 확인해 봐! 눈앞에 있는 제시문의 정보를 놓치면 안 된다!

56) ⑤

16%	2%	10%	8%	64%
-----	----	-----	----	-----

☞ Zola ① 시기나 질투와 같은 감정, 살인과 같은 감정은 그 자체로 도덕적(품성적) 덕이 될 수 없음. 도덕적 덕이 될 수 없으면 중용이 될 수도 없음.

57) ④

2%	3%	4%	84%	4%
----	----	----	-----	----

58) ④

1%	6%	3%	74%	16%
----	----	----	-----	-----

59) ③

1%	6%	89%	3%	1%
----	----	-----	----	----

60) ①

66%	6%	17%	8%	3%
-----	----	-----	----	----

61) ②

62) ①

75%	7%	5%	11%	2%
-----	----	----	-----	----

☞ Zola 답을 도출하는데는 사상이 알 필요없음. 그러나 '을' 제시문 눈팅 잘 해 둘 것. '을'은 벤담임.

63) ④

☞ Zola 선지 ②를 선택했다면 칸트 개념 강의 부분을 다시 확인하길 바람. '의무에 맞는'과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를 구분해야 함! 참고로 교육청의 원래 선지 ②가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였음.

64) ②

3%	91%	2%	2%	2%
----	-----	----	----	----

65) ④

13%	3%	6%	74%	5%
-----	----	----	-----	----

66) ②

12%	67%	8%	9%	4%
-----	-----	----	----	----

67) ㄴ, ㄷ

☞ Zola ㄹ은 바나나 선지임. 미래 세대가 현 세대(미래 세대 기준으로 하자면 과거 세대)에게 책임을 질 수 없음. 그래서 책임은 현 세대의 '일방적' 책임임. ㄹ 오답률이 31%임!!!!(ebs 기준)

68) ②

2%	83%	2%	10%	3%
----	-----	----	-----	----

☞ Zola ebs 추정 정답률은 68%로 낮음. 선지 ④는 바나나 선지임.

69) ①

72%	23%	2%	2%	2%
-----	-----	----	----	----

☞ Zola ② '총체적'은 맞음. '호혜적'이고 아니고 '비호혜적'임. 자료 교재 제시문 잘 볼 것!!

70) 아래 표 참고. 국어(독해)로 풀 수 있음.

관점	학생	YOU!
인간의 이타적 행동은 신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인간의 이타적 행동은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이다.		✓
인간은 선천적이고 불변하는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윤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도덕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

71) ②

72) ④

73) ③

74) ⑤

75) ①

54%	8%	15%	4%	19%
-----	----	-----	----	-----

76) ②

3%	68%	19%	7%	3%
----	-----	-----	----	----

77) ⑤

0%	1%	1%	3%	95%
----	----	----	----	-----

78) ④

☞ Zola 가로열쇠 A: 토의(검‘토’하고 협‘의’함) B: 여론

79) ⑤

4%	10%	3%	4%	79%
----	-----	----	----	-----

☞ Zola 국어로도 풀리는 문제임. 갑 사상가가 누군지 몰라도 공리주의라는 개념으로도 풀림. 그런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서 의아함. but!!!! 바나나가 되기 싫으면 갑 사상가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지식을 장착해 두길 바람! 갑 사상가는 밀임!!

80) ②

3%	79%	6%	2%	10%
----	-----	----	----	-----

81) ⑤

2%	4%	17%	9%	68%
----	----	-----	----	-----

82) ㄱ, ㄷ

83) ④

4%	11%	31%	48%	3%
----	-----	-----	-----	----

☞ Zola (1) 갑은 도가 사상임. ‘진인’이라는 단어가 길잡이 역할을 함. 그리고 문장을 분석하면 ‘진인’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임. 즉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게 됨. 이것은 유가의 ‘분별심’을 비판하는 글임. 도가는 anti 유가임. (2) 을은 에피쿠로스임.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기쁨 추구)임. 제시문의 마지막에 ‘즐거움/향유’에서 쾌락주의자임을 알 수 있어야 함!

84) ②

17%	68%	4%	7%	4%
-----	-----	----	----	----

☞ Zola (가)는 유가임. 살신성인(殺身成仁)과 관련된 내용임. 구차하게 사느니 당당하게 죽겠다!

85) ②

3%	92%	3%	1%	1%
----	-----	----	----	----

86) ③

3%	15%	65%	4%	14%
----	-----	-----	----	-----

87) ④

4%	3%	4%	86%	3%
----	----	----	-----	----

88) ⑤

24%	4%	12%	4%	56%
-----	----	-----	----	-----

☞ Zola 정답되는 선지가 바나나 선지임.

89) ⑤

5%	54%	7%	2%	32%
----	-----	----	----	-----

☞ Zola 정답되는 선지가 살짝(?) 바나나 선지임.

90) ㄱ, ㄷ

☞ Zola 갑-플라톤, 을-도가(장자). ㄴ. 플라톤의 참된 진리는 이데아를 의미함. 이데아는 초감각적임. ㄴ 선지는 Zola가 창작한 선지임.

91) ④

1%	1%	3%	94%	0%
----	----	----	-----	----

92) ③

2%	2%	46%	4%	45%
----	----	-----	----	-----

☞ Zola 독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바나나 문제임. 바나나들이 ‘ㄷ’에서 많이 틀림. 제시문에 따르면 태아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가 됨.(잠재성 논거임)

93) ②

☞ Zola 자료 분석형임. good~

94) ④

18%	1%	1%	78%	1%
-----	----	----	-----	----

95) ③	1%	6%	83%	1%	9%
-------	----	----	-----	----	----

96) ⑤	3%	2%	8%	2%	86%
-------	----	----	----	----	-----

97) ①	96%	1%	1%	1%	0%
-------	-----	----	----	----	----

98) ②	6%	76%	12%	3%	3%
-------	----	-----	-----	----	----

☞ Zola 다른 기출들에 비해 정답률이 낮은 문제임. ebs 추정 정답률은 64%임.

99) ②	4%	86%	8%	1%	1%
-------	----	-----	----	----	----

100) ④	6%	11%	1%	73%	9%
--------	----	-----	----	-----	----

101) ③

102) ㄱ, ㄷ

☞ Zola 고2 교육청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자료 분석형 문제임. 수능의 원래 취지에 충실한 문제임.

ㄱ. 교과서 수준의 지식이 필요함.

[교학사] 생식 보조술은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출산 도구로 소외시키고, 아기의 건강도 보장할 수 없다. 시술 과정에서 여성은 매일 주사를 맞거나 채혈해야 한다. 난소 과잉 자극 증후군* 같은 병에 노출되며, 위험한 다태 임신**을 감수해야 한다.

* 난소 과잉 자극 증후군: 배란 유발제로 인해 난소가 커지고 주머니 모양의 혹이 생기며 복수가 차는 등의 질환.

** 다태 임신: 한 배에 둘 이상의 태아를 갖는 임신.

ㄴ. 답이 안 됨. '친모의 난자'와 '친부의 정자'가 활용됨이 자료에서 확인되기 때문임.

ㄹ. 맞춤형 아기는 유전병을 예방하려는 부모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음. 즉 문제점이 아님.

103) ④	2%	2%	1%	60%	35%
--------	----	----	----	-----	-----

104) ⑤	5%	3%	1%	5%	86%
--------	----	----	----	----	-----

105) ⑤	4%	2%	10%	9%	75%
--------	----	----	-----	----	-----

106) ㄴ, ㄹ

107) ⑤	1%	1%	3%	1%	94%
--------	----	----	----	----	-----

108) ①	90%	3%	4%	1%	2%
--------	-----	----	----	----	----

109) ②	1%	84%	2%	2%	11%
--------	----	-----	----	----	-----

☞ Zola 바나나 저격용 문제임. 공부 안 하고 국어로 풀면 답이 바로 나옴. 그런데 바나나들이 기껏 생운 공부해서 제시문을 '보수주의'라는 개념 공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선지 ⑤를 선택함. 제시문-보수주의-선지 ⑤를 선택한 분들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지 ②는 보수주의 아닌가요? 선지 ②도 보수주의인데 선지 ⑤를 선택한 '객관적 근거'는 어디 있나요?

110) ④	4%	3%	4%	87%	3%
--------	----	----	----	-----	----

111) ④	1%	1%	2%	94%	2%
--------	----	----	----	-----	----

☞ Zola 23 수능 문제 중에서 네 번째로 쉬웠던 문제임. 국어로도 풀림.

112) ④	11%	4%	4%	78%	3%
--------	-----	----	----	-----	----

113) ③

114) ①	72%	9%	3%	6%	10%
--------	-----	----	----	----	-----

115) ㄴ, ㄹ

☞ Zola 제시문에 혼례는 두 '성(姓)'이 하나가 되는 것임. 여기서 성(姓)은 가문, 집안, 가계, 혈통을 의미함. 즉, 혼례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닐 집안 간의 문제임. 그래서 ㄱ, ㄴ, ㄷ 모두 틀림. '당사자 간'이 아님. 일단 여기까지가 기출 제시문 내용임. 단, 최근 전통 윤리는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가보다라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자(만약 나오면 님들은 대박일 거임^^).

116) ②

117) ①	92%	4%	1%	1%	1%
--------	-----	----	----	----	----

118) ④	3%	1%	2%	92%	2%
--------	----	----	----	-----	----

119) ④	3%	9%	16%	67%	5%
--------	----	----	-----	-----	----

120) ③	1%	3%	86%	9%	1%
--------	----	----	-----	----	----

☞ Zola ㉠=호

② 호의 완성=입신양명(몸을 세워 이름을 떨침)

④ 호와 시작=불감혜상(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

121) ③	11%	4%	82%	1%	2%
--------	-----	----	-----	----	----

☞ Zola 선지 ①[부자유친의 본질은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가 바나나 선지임. 그런데 오답률이 가장 높음. '본질은 ~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지'하고 바나나 선지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했음. Zola 생운 O 강의-바나나 제거 특강(orbiclass,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바나나 제거 특강' 검색하면 됨)을 듣고 연습하셈! 100% 도움됨!

122) ③	3%	2%	68%	17%	10%
--------	----	----	-----	-----	-----

123) ②	5%	85%	3%	4%	3%
--------	----	-----	----	----	----

124) ④

☞ Zola (1) A는 '자선', B는 '경애'임. 그래서 남들은 '자애'에 대한 선지를 골라야 함. 참고로 남들 선배 바나나들은 A에 '위문', '위로' 등을 떠올려서 그때부터 망했음.....ㅋㅋㅋㅋ

(2) '자애'와 '효'는 연관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임.

[참고] '자애'와 '효'가 구분된다는 점은 오르비 김준호 강사의 공개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필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현자의 돌' 블로그에 올라온 글 중 일부임. <https://blog.naver.com/cucuzz/221373192727>)

125) ②	2%	86%	2%	7%	3%
--------	----	-----	----	----	----

126) ④	2%	11%	2%	84%	2%
--------	----	-----	----	-----	----

127) ③	1%	1%	95%	1%	2%
--------	----	----	-----	----	----

128) ④	6%	6%	6%	77%	5%
--------	----	----	----	-----	----

129) ④	4%	2%	3%	87%	4%
--------	----	----	----	-----	----

130) ②	4%	54%	17%	7%	15%
--------	----	-----	-----	----	-----

☞ Zola ②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확산의 수단'은 다른 '문장'임.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도 다른 선지임.

131) ⑤	11%	13%	16%	5%	54%
--------	-----	-----	-----	----	-----

☞ Zola 국어로 풀리는 문제임. 제시문 마지막 문장에서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단서)이 붙어 있음.

132) ①	85%	2%	2%	2%	9%
--------	-----	----	----	----	----

133) ⑤	1%	1%	2%	7%	89%
--------	----	----	----	----	-----

134) ②	1%	55%	1%	43%	1%
--------	----	-----	----	-----	----

☞ Zola <보기> = 때문에 정답률 낮아짐.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다른 선지임. (1) '자연스럽게'는 '저절로'를 의미함. =은 '본업이 되면 저절로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임. 그럴까? 지식적인 내용은 자료 교재 혹은 개념 강의에 나옴. (2) 일부 논리가 뛰어난(?) 바나나들은 자연스럽게 '충분조건'으로 생각하고 풀었다고 함. 선지에서 충분조건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나나분들이 너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한 것 같음. 묻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말 것!!

135) ④	2%	6%	3%	89%	1%
--------	----	----	----	-----	----

136) ③	3%	6%	88%	2%	1%
--------	----	----	-----	----	----

137) ③	3%	5%	83%	3%	6%
--------	----	----	-----	----	----

138) ①	88%	4%	1%	5%	2%
--------	-----	----	----	----	----

139) ⑤	2%	5%	1%	5%	87%
--------	----	----	----	----	-----

140) ⑤	2%	2%	1%	1%	94%
--------	----	----	----	----	-----

141) ③	1%	1%	93%	2%	2%
--------	----	----	-----	----	----

☞ Zola 초딩 도덕 문제 같음. 국어와 정상적인(?) 도덕성으로 풀고 넘어갈 것.

142) ③	1%	2%	95%	1%	1%
--------	----	----	-----	----	----

143) ④	37%	5%	1%	47%	9%
--------	-----	----	----	-----	----

☞ Zola 독해로 해결 가능한 ㄴ을 놓친 수험생이 38%

144) ④	1%	1%	54%	42%	2%
--------	----	----	-----	-----	----

☞ Zola 수능에 처음 나온 선지가 ㄱ임. 그래서 많이 틀렸음.

145) ㄱ, ㄴ, ㄷ

☞ Zola 15 수능 19번의 <보기> ㄱ에서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이라는 표현이 있었음.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과 같은 의미임.

146) ⑤	6%	4%	14%	10%	66%
--------	----	----	-----	-----	-----

147) ④	11%	2%	10%	72%	5%
--------	-----	----	-----	-----	----

148) ②

12%	62%	8%	7%	11%
-----	-----	----	----	-----

149) ⑤

2%	3%	38%	3%	(44~)54%
----	----	-----	----	----------

☞ Zola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수능 문제임. 6평이나 9평 만점 혹은 고득점 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문제임.

150) ④

5%	11%	2%	77%	5%
----	-----	----	-----	----

☞ Zola 기출에 사용된 선지 재활용한 문제임.

<17>[기출 선지들] OX 확인해 보자!

[14-9-15, 78%] 사회 부정의는 <u>외적 강제력</u> 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14-수능-19-ㄷ, 47%] <u>사회적 강제력</u> 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14-수능-19-ㄹ, 47%] <u>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u> 은 배제하세요.	
[15-수능-19-ㄱ, 41%] <u>선의지의 통제</u> 를 받는 <u>비합리적 수단</u> 이 필요하다.	
[15-수능-19-ㄹ, 41%] <u>도덕적 설득</u> 과 <u>정치적 강제력</u> 이 병행되어야 한다.	
[16-9-6, 79%]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u>합리적인 사회 강제력</u> 을 권고한다.	
[17-6-10-ㄷ,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선의지의 함양</u> 이 필요하다.	
[17-6-10-ㄹ,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강제력</u> 의 사용이 필요하다.	
[17-수능-5, 72%] 개인 간 갈등은 <u>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u> 으로 조정될 수 있다.	
[18-수능-13, 89%] 진정한 정의는 <u>선의지</u> 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19-6-13, 62%]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u>개인은 비이기적 태도</u> 를 취할 수 있다.	
[19-수능-3, 54%] <u>최소한의 강제력</u> 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51) ①

92%	2%	2%	2%	2%
-----	----	----	----	----

☞ Zola 선지 ②~⑤ 모두 잘 알아둘 것.

152) ⑤

10%	16%	6%	16%	52%
-----	-----	----	-----	-----

153) ③

☞ Zola 정답률이 30%가 되지 않았음.

154) ①

155) ②

6%	46%	17%	15%	17%
----	-----	-----	-----	-----

☞ Zola 이 문제 정답률이 낮은 것은 남들의 지식 공부가 부족해서임. 단지 그것뿐임.

156) ㄱ, ㄴ, ㄷ, ㄹ

157) ③

6%	4%	85%	4%	1%
----	----	-----	----	----

158) ④

5%	3%	18%	46%	28%
----	----	-----	-----	-----

159) ③

10%	6%	49%	26%	9%
-----	----	-----	-----	----

160) ③

8%	9%	51%	6%	23%
----	----	-----	----	-----

161) ⑤

3%	5%	13%	4%	74%
----	----	-----	----	-----

162) ③

7%	9%	29%	11%	44%
----	----	-----	-----	-----

☞ Zola <보기> ㄱ이 대표적인 역대급 바나나임. Zola 생운 O-part 2 강의에서 다루었음.

163) ①

40%	13%	28%	5%	15%
-----	-----	-----	----	-----

☞ Zola 바나나 문제임. 그런데 정답률이 너무 낮음. ㅏㅏ

164) ②

12%	33%	40%	5%	10%
-----	-----	-----	----	-----

165) ④

10%	10%	6%	56%	17%
-----	-----	----	-----	-----

166) ③

6%	11%	68%	7%	9%
----	-----	-----	----	----

167) ①

47%	3%	19%	16%	14%
-----	----	-----	-----	-----

☞ Zola ① 롤스에게 있어서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이 소유 권리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함. 기본적 자유의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언급하였음. ③ 취득의 제한 조건 중에는 노동 투입 외에도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가 있음.

168) ②	5%	63%	7%	18%	7%
--------	----	-----	----	-----	----

☞ Zola ㄱ.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소멸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노직과 롤스는 국가 안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ㄴ. 최소 국가는 부정의한 분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ㄴ. 노직에 의하면 자기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어도 정당한 이전에 의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ㄷ.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에 의하면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 권리이다. 롤스는 기본적 권리는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169) ④	7%	8%	20%	32%	34%
--------	----	----	-----	-----	-----

☞ Zola ㄴ. 롤스: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님.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경우 제한이 가능함.

170) ④	19%	4%	4%	67%	6%
--------	-----	----	----	-----	----

171) ⑤	7%	8%	17%	25%	43%
--------	----	----	-----	-----	-----

172) ⑤	9%	18%	30%	6%	37%
--------	----	-----	-----	----	-----

173) ④	26%	6%	13%	48%	7%
--------	-----	----	-----	-----	----

☞ Zola ㄱ 선지가 새로운 선지임. but 선지 조합상 답은 맞출 수 있음.

174) ⑤	18%	26%	21%	10%	26%
--------	-----	-----	-----	-----	-----

☞ Zola 공부 제대로 한 진짜 1등급과 어정쩡한 1등급을 구분짓는 선지가 'ㄴ' 선지임.

175) ①	13%	32%	17%	20%	17%
--------	-----	-----	-----	-----	-----

☞ Zola ㄱ이 바나나 선지임. 왜 틀리는 거야???ㄷㄷ

176) ①	38%	47%	5%	5%	4%
--------	-----	-----	----	----	----

☞ Zola 기본 지식으로 ㄴ과 ㄷ을 소거법을 제거할 수 있음.

177) ②	2%	86%	2%	9%	1%
--------	----	-----	----	----	----

178) ②	2%	90%	3%	2%	3%
--------	----	-----	----	----	----

179) ⑤	5%	53%	4%	6%	32%
--------	----	-----	----	----	-----

☞ Zola 선지 ②를 선택한 바나나님들에게 묻습니다. 롤스(을) '취득 및 양도 절차'를 '기준'으로 언제 제시했나요? 롤스의 정의의 기준은 뭔가요? 님들 뇌피셜로 문제 푸는 것 아닙니다!

180) ③	5%	7%	68%	5%	15%
--------	----	----	-----	----	-----

181) ⑤	5%	4%	4%	11%	76%
--------	----	----	----	-----	-----

182) ①	78%	4%	5%	5%	8%
--------	-----	----	----	----	----

183) ⑤	2%	3%	3%	4%	85%
--------	----	----	----	----	-----

184) ②	3%	78%	1%	16%	2%
--------	----	-----	----	-----	----

185) ⑤	3%	6%	32%	23%	37%
--------	----	----	-----	-----	-----

186) ②	2%	(51~)65%	3%	23%	7%
--------	----	----------	----	-----	----

187) ⑤	10%	4%	3%	44%	38%
--------	-----	----	----	-----	-----

188) ④	6%	2%	7%	72%	13%
--------	----	----	----	-----	-----

189) ⑤	42%	12%	5%	11%	28%
--------	-----	-----	----	-----	-----

190) ⑤	7%	6%	2%	2%	83%
--------	----	----	----	----	-----

191) ③	4%	10%	75%	6%	5%
--------	----	-----	-----	----	----

192) ⑤	3%	5%	10%	3%	79%
--------	----	----	-----	----	-----

193) ⑤	3%	2%	6%	13%	76%
--------	----	----	----	-----	-----

194) ②	3%	78%	5%	7%	7%
--------	----	-----	----	----	----

195) ③	23%	12%	20%	40%	6%
--------	-----	-----	-----	-----	----

☞ Zola 문항 난이도에 비해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수험생들의 학습 방법 혹은 문제 풀이 방법의 약점을 알 수 있는 문제였음.

196) ②	4%	79%	6%	5%	5%
--------	----	-----	----	----	----

197) ④	3%	8%	57%	22%	10%
--------	----	----	-----	-----	-----

☞ Zola ④ 칸트에 따르면 베카리아의 계약론적 입장은 형벌권을 범인의 동의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으

로 명백히 잘못된 입장이다.

- ③ 베카리아는 사형이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즉, 사형의 효과가 '적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이 아님. 역대 최고 오답률임. ebs 추정 오답률은 82%임. ㅋㅋ... 솔직히 쪼잔한 선지임.

198) ⑤

4%	4%	12%	12%	68%
----	----	-----	-----	-----

- ☞ Zola <보기> = 틀리신 분들은 바나나 기질이 강한 분들임. 조심해야 함. (1) 일단 제시문에 조건(단서)이 나오는데 그걸 읽고도 모름. 제시문을 가볍게 보는 바나나임. (2) 그리고 계약론 개념 자체가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 개념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상가의 세부적인 지식에 매몰되는 분들임. 조심할 것! Zola가 알려주는 대로 푸셈!!

199) ⑤

6%	4%	21%	5%	65%
----	----	-----	----	-----

200) ④

19%	17%	6%	46%	13%
-----	-----	----	-----	-----

- ☞ Zola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임. 의무론(칸트) 입장에서는 공적 이익과 공적 정의는 다른 개념임. 기본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음.

201) ⑤

11%	8%	45%	10%	25%
-----	----	-----	-----	-----

- ☞ Zola 선지 ④가 처음 나왔음. 당시 ebs 해설에 오류가 있던 선지임. 정답 되는 선지는 조심해야 함.

202) ④

28%	6%	14%	40%	13%
-----	----	-----	-----	-----

- ☞ Zola 선지 ①이 처음 나왔음. BUT 그게 틀리는 이유가 되면 안 됨. 정답이 '기출'로 확정되기 때문임.

203) ④

3%	2%	4%	85%	6%
----	----	----	-----	----

204) ③

5%	25%	57%	2%	11%
----	-----	-----	----	-----

- ☞ Zola 같은 로크(사회계약론)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본성론)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간의 본성은 정치적인)로서 공동체(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상호 동의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상호 동의에 의해 국가가 생긴다는 입장은 사회계약론적 입장이다.

205) ③

2%	8%	75%	9%	7%
----	----	-----	----	----

206) ④

9%	3%	15%	65%	9%
----	----	-----	-----	----

207) ①

43%	16%	5%	8%	28%
-----	-----	----	----	-----

208) ④

17%	14%	11%	32%	26%
-----	-----	-----	-----	-----

- ☞ Zola 처음 등장한 선지 조합임. 킬러가 될 운명의 선지 조합임(과탐에서는 활용되는 조합이었음).

209) ①

45%	10%	22%	13%	11%
-----	-----	-----	-----	-----

210) ③

4%	9%	68%	8%	11%
----	----	-----	----	-----

211) ④

31%	3%	3%	55%	9%
-----	----	----	-----	----

- ☞ Zola 갑-흠스, 을-로크. =은 바나나 선지. =은 기본 개념 선지임.

212) ④

8%	5%	9%	54%	24%
----	----	----	-----	-----

- ☞ Zola 갑-흠스, 을-로크. 소거법으로 풀면 더 쉽게 풀림.

213) ③

5%	3%	86%	4%	2%
----	----	-----	----	----

214) ㄱ, ㄴ

- ☞ Zola 같은 순자(분별, 예), 을은 흠스이다.

215) ③

1%	3%	67%	8%	19%
----	----	-----	----	-----

216) ⑤

4%	3%	4%	7%	82%
----	----	----	----	-----

- ☞ Zola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유가) 개념 묻는 문제임.

217) ⑤

9%	26%	7%	8%	50%
----	-----	----	----	-----

- ☞ Zola 정답이 되는 선지 ⑤를 개념 강의에서 필기·설명했음.

218) ③

6%	17%	60%	10%	5%
----	-----	-----	-----	----

- ☞ Zola 제시문 사상가는 흠스(사회계약론)임. ③은 아리스토텔레스임. 알아두자.

219) ②

6%	90%	2%	1%	1%
----	-----	----	----	----

- ☞ Zola 독해로 가능함. but(!)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요 사상가이므로 지식으로도 확인해 둘 것.

220) ④

7%	11%	11%	68%	3%
----	-----	-----	-----	----

221) ②

33%	54%	4%	1%	8%
-----	-----	----	----	----

222) ②

11%	66%	17%	5%	1%
-----	-----	-----	----	----

☞ Zola (1) 이 문제 정답률이 60%대라는 것은 윤사 바나나들이 얼마나 독해를 안 하고 불확실한 자신의 머리에 의존하는지를 잘 보여줌.

(2) 사상가는 ‘흙’임. 그러나 사상가는 몰라도 되고 ‘혜택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됨.

223) ③

224) ①

64%	21%	2%	10%	3%
-----	-----	----	-----	----

225) ②

4%	78%	7%	2%	8%
----	-----	----	----	----

☞ Zola 갑-아리스토텔레스, 을-로크. 생윤으로 출제되어도 70% 이상 정답률은 나올 듯함. ⑤는 갑만 해당함.

226) ④

3%	8%	2%	85%	3%
----	----	----	-----	----

☞ Zola 처음 나온 문제임. 그러나 정답률은 높음. 이유는 하나. 독해형이어서 그러함. 앞으로 지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

227) ③

6%	5%	41%	28%	20%
----	----	-----	-----	-----

228) ①

48%	1%	5%	33%	13%
-----	----	----	-----	-----

229) ④

5%	3%	5%	84%	3%
----	----	----	-----	----

230) ①

53%	14%	3%	23%	7%
-----	-----	----	-----	----

☞ Zola 대표적인 바나나 문제임. Zola 생윤 O-part 2 강의에서 다루었음.

231) ③

6%	3%	57%	10%	24%
----	----	-----	-----	-----

☞ Zola <보기> ㄷ을 고민하고 있으면 바나나임. Zola 생윤 O 강의 확인할 것.

232) ②

2%	67%	7%	9%	15%
----	-----	----	----	-----

233) ②

16%	73%	4%	4%	4%
-----	-----	----	----	----

☞ Zola 처음으로 소로, 롤스 이외의 시민 불복종 사상가(싱어)가 등장한 문제임. 을 제시문이 왜 싱어가 되는지 독해 포인트를 강의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것.

234) ④

1%	9%	14%	74%	2%
----	----	-----	-----	----

235) ⑤

5%	3%	19%	19%	54%
----	----	-----	-----	-----

☞ Zola 이지영 쌤이 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고 여러 학생들에게 전해 들었음. but Zola는 오류 없다고 봄. 이상 없음.

[간단 해설]

ㄱ. 롤스에 의하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된 정의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ㄴ. 롤스에 의하면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ㄷ. 싱어에 의하면 시민 불복종은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하는 행위이다.

ㄹ.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의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36) ④

3%	3%	4%	68%	22%
----	----	----	-----	-----

237) ③

16%	3%	52%	24%	6%
-----	----	-----	-----	----

238) ㄴ, ㄷ

239) ⑤

2%	5%	35%	15%	43%
----	----	-----	-----	-----

240) ①

38%	45%	3%	7%	7%
-----	-----	----	----	----

☞ Zola 선지 ①이 처음 나온 선지임. 선지 ②도 처음 나온 선지임. 시험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였음.

241) ①

50%	19%	13%	5%	12%
-----	-----	-----	----	-----

242) ②

21%	25%	8%	32%	14%
-----	-----	----	-----	-----

☞ Zola ②를 못 푼 분들 중에는 지식이 아닌 독해(해석)가 문제인 분들이 많음. ‘차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와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는 전혀 다른 의미임.

243) ①

☞ Zola 아주 전형적인 지식형 문제임. 틀렸다면 님의 백지 복습이 약한 것임.

244) ③

2%	8%	59%	7%	24%
----	----	-----	----	-----

245) ⑤

2%	15%	2%	2%	79%
----	-----	----	----	-----

246) ④

32%	9%	4%	49%	5%
-----	----	----	-----	----

☞ Zola 갑~정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질문	갑	을	병	정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X	X	O	X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연구해야 하는가?	X	X	X	O
ㄷ. 과학자는 연구자채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O	X	X	X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과정에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가?	O	O	X	X

247) ③

2%	2%	93%	2%	1%
----	----	-----	----	----

248) ④

23%	2%	4%	68%	3%
-----	----	----	-----	----

☞ Zola ㄴ. 하이데거는 가치 중립성을 비판한다. ㄹ.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과학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윤리의 문제로 본다. [주의] ㄱ. 제시문에 따르면 기술 그 자체는 선악이 아니지만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선악의 문제이다.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독해 가능함).

249) ④

2%	4%	13%	75%	5%
----	----	-----	-----	----

☞ Zola

(1) 의외로 정답률이 낮음. ebs 예상 정답률은 69%임. 참고로 23학년도 9평 문제가 동일 유형이었는데, 이 때는 정답률이 90%였음.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2) 갑, 을 사상가가 각각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음. 어떤 '입장'인지만 알 수 있으면 됨. 참고로 갑은 야스퍼스, 을은 하이데거임.

250) ①

82%	5%	10%	2%	1%
-----	----	-----	----	----

251) ⑤

☞ Zola 정답률이 62%여서 깜놀했음.

252) ④

7%	18%	4%	69%	1%
----	-----	----	-----	----

253) ③

3%	6%	78%	4%	9%
----	----	-----	----	----

254) ②

8%	87%	2%	2%	1%
----	-----	----	----	----

255) ④

17%	2%	4%	76%	1%
-----	----	----	-----	----

256) ④

4%	3%	5%	85%	3%
----	----	----	-----	----

257) ③

3%	3%	80%	6%	7%
----	----	-----	----	----

258) ②

7%	69%	21%	1%	2%
----	-----	-----	----	----

259) ③

1%	1%	96%	1%	1%
----	----	-----	----	----

260) ①

97%	1%	0%	0%	0%
-----	----	----	----	----

261) ④

262) ②

14%	59%	7%	2%	16%
-----	-----	----	----	-----

263) ④

4%	22%	13%	46%	12%
----	-----	-----	-----	-----

264) ②

15%	26%	18%	13%	28%
-----	-----	-----	-----	-----

265) ④

5%	6%	12%	56%	21%
----	----	-----	-----	-----

266) ③

8%	2%	80%	6%	4%
----	----	-----	----	----

267) ②

5%	63%	7%	12%	13%
----	-----	----	-----	-----

268) ③

7%	17%	36%	22%	18%
----	-----	-----	-----	-----

☞ Zola '을' 제시문을 '인간 중심주의'로 푸신 분들이 엄청 많음. 을의 어디가 인간 중심주의인가요???

을은 인간의 이익 관심을 '초월'한, '새로운', '자연 전체를 조망'하라는데, 님들은 어디를 보고 인간 중심주의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사상가는 누군지 몰라도 됨. 교과서에서 다루는 사상가가 아님.

269) ②

2%	84%	7%	3%	2%
----	-----	----	----	----

270) ③

9%	7%	21%	13%	50%
----	----	-----	-----	-----

271) ①

70%	8%	15%	3%	4%
-----	----	-----	----	----

272) ①

44%	10%	11%	23%	12%
-----	-----	-----	-----	-----

273) ③

5%	46%	28%	9%	11%
----	-----	-----	----	-----

274) ②

2%	65%	2%	28%	3%
----	-----	----	-----	----

275) ⑤	17%	9%	9%	29%	35%
276) ①	28%	3%	5%	59%	5%
277) ②	5%	65%	6%	14%	10%
278) ③	9%	10%	29%	17%	35%
279) ③	7%	13%	59%	13%	7%
280) ④	8%	3%	6%	74%	9%
281) ④	3%	6%	23%	55%	13%
282) ③	5%	14%	58%	6%	17%
283) ④	1%	11%	41%	45%	2%
284) ③	7%	25%	39%	8%	21%
285) ③	2%	14%	63%	15%	6%
286) ③	11%	21%	36%	5%	27%
287) ⑤	5%	19%	4%	9%	63%
288) ③	24%	5%	53%	7%	11%
289) ⑤	12%	9%	11%	19%	49%

☞ Zola <보기> ㉠에서 ‘환원’이라는 단어(워딩)를 칸트가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워딩 바나나를 보았습니다. 생운 공부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험지는 사상가의 워딩을 그대로 따온 복사본일 경우도 있지만, 사상가들의 입장을 제3자(연구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환원’이라는 단어를 칸트가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바나나가 될 것이 아니라 칸트의 입장을 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290) ①	52%	5%	5%	33%	6%
291) ③	13%	19%	49%	10%	9%
292) ⑤	11%	8%	12%	27%	42%
293) ②	8%	40%	19%	11%	22%
294) ③	5%	13%	43%	11%	29%
295) ②	22%	49%	10%	8%	11%
296) ④	14%	5%	14%	63%	5%
297) ②	9%	59%	3%	25%	4%
298) ④	7%	26%	10%	49%	9%

299) ④

300) L, C

301) ④	18%	5%	1%	71%	5%
--------	-----	----	----	-----	----

☞ Zola 의외로 정답률이 낮네요. 이유가 뭘까요???

302) ⑤	2%	2%	31%	3%	62%
--------	----	----	-----	----	-----

☞ Zola 선지 ③ 선택하신 분들은 제시문 바나나임. 개념을 극단화시키고, 제시문의 정보들을 무시함. 제시문 첫 번째 문장에서 선지 ③을 판단할 수 있음.

303) ④. 메가스터디 예상 정답률 88%

304) ②. 메가스터디 예상 정답률 96%

305) ③	8%	2%	78%	3%	10%
--------	----	----	-----	----	-----

☞ Zola 사상가는 플라톤. 선지 ⑤는 정신 차릴 것! 인간이 이데아를 창조할 수 없음.

306) ⑤	15%	5%	11%	2%	67%
--------	-----	----	-----	----	-----

☞ Zola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임. but(!) 독해 문제임.

307) ③	2%	16%	72%	6%	4%
--------	----	-----	-----	----	----

☞ Zola 칸트의 예술관이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임. 단, 답은 칸트 예술관에 대한 지식 없어도 나옴.

308) ①	77%	3%	4%	3%	13%
--------	-----	----	----	----	-----

309) ④	7%	3%	4%	77%	9%
--------	----	----	----	-----	----

☞ Zola 칸트 예술관이 단독형으로 출제된 최초의 문제임. 칸트 예술관은 공부해 두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310) ①	69%	7%	9%	6%	6%
--------	-----	----	----	----	----

311) ②	2%	84%	4%	4%	6%
--------	----	-----	----	----	----

312) ①	93%	2%	2%	3%	1%
--------	-----	----	----	----	----

313) ②	5%	81%	10%	3%	1%
--------	----	-----	-----	----	----

314) ⑤	3%	1%	2%	3%	91%
--------	----	----	----	----	-----

☞ Zola 정답되는 선지가 바나나 선지일 듯(너무 당연!)

315) ③	4%	3%	90%	1%	2%
--------	----	----	-----	----	----

316) ②	3%	90%	3%	2%	2%
--------	----	-----	----	----	----

317) ㄱ, ㄷ

318) ④	6%	1%	1%	85%	8%
--------	----	----	----	-----	----

319) ④	1%	14%	1%	81%	3%
--------	----	-----	----	-----	----

☞ Zola 제시문의 사상가가 '지멜'이라는 것은 문제 푸는데 1도 필요없음. 참고로 교과서에 나오는 사상가임.

320) ⑤

321) ③	2%	4%	82%	5%	7%
--------	----	----	-----	----	----

☞ Zola 제시문의 사상가가 '포퍼'라는 것은 문제 푸는데 1도 필요없음. 참고로 교과서에 나오는 사상가임.

322) ④	1%	1%	4%	94%	1%
--------	----	----	----	-----	----

323) ⑤	3%	3%	6%	5%	83%
--------	----	----	----	----	-----

324) ⑤	1%	1%	2%	2%	94%
--------	----	----	----	----	-----

325) ⑤	5%	7%	6%	10%	72%
--------	----	----	----	-----	-----

☞ Zola 선지 ② 보충.

첫 번째 줄: '나'는 기본적 권리는 문화라는 맥락 안에서 행사될 수 있다. [문화>권리]로 볼 수 있음.

네 번째 줄: '어떤 학자'는 소수문화를 이유로 별도 권리 부여에 반대함. 따라서 이 입장은 [문화<권리]라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음.

326) ㄱ, ㄴ

327) ④	0%	0%	3%	96%	1%
--------	----	----	----	-----	----

328) ③	3%	1%	90%	1%	5%
--------	----	----	-----	----	----

329) ④	1%	2%	10%	74%	13%
--------	----	----	-----	-----	-----

330) ④	5%	7%	8%	76%	4%
--------	----	----	----	-----	----

331) ③	3%	2%	89%	4%	2%
--------	----	----	-----	----	----

332) ②	2%	83%	5%	3%	7%
--------	----	-----	----	----	----

333) ①	76%	7%	5%	4%	8%
--------	-----	----	----	----	----

334) ⑤	5%	13%	3%	2%	77%
--------	----	-----	----	----	-----

335) ①	72%	7%	12%	5%	4%
--------	-----	----	-----	----	----

☞ Zola 엘리야데 백지 복습되어 있으면 5초만에 답 나오는 문제임. 정답률이 72%(ebs 추정 정답률 58%)이라는 것은 그만큼 개념 또는 사상가 공부량이 적다는 것임. 기출을 대충 눈대중으로 푸니까 이런 일이 수능장에서 생기는 것임. 엘리야데 백지 복습 반드시 할 것! 평소에 문제 잘 맞춘다고 자만하지 말 것!!

336) ⑤	10%	1%	2%	2%	86%
--------	-----	----	----	----	-----

337) ⑤

338) ②	1%	96%	1%	1%	1%
--------	----	-----	----	----	----

☞ Zola 원효 일심 사상 처음 나옴. 그렇다고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님. 제시문의 한자는 화쟁임. [和靜]=화쟁

339) ④	1%	5%	2%	86%	6%
--------	----	----	----	-----	----

340) ⑤	0%	1%	1%	1%	97%
--------	----	----	----	----	-----

341) ③	3%	2%	91%	3%	1%
--------	----	----	-----	----	----

342) ①	65%	10%	6%	16%	3%
--------	-----	-----	----	-----	----

343) ①	79%	15%	2%	3%	1%
--------	-----	-----	----	----	----

344) ①	96%	1%	1%	1%	1%
--------	-----	----	----	----	----

☞ Zola 선지 ⑤ 꼭 확인할 것! 개인적 준칙 주장 가능함.

345) ⑤	5%	3%	17%	3%	72%
--------	----	----	-----	----	-----

346) ④	10%	2%	2%	84%	2%
--------	-----	----	----	-----	----

347) ④	1%	3%	7%	87%	2%
--------	----	----	----	-----	----

348) ④	19%	26%	11%	26%	16%
--------	-----	-----	-----	-----	-----

349) ①	82%	4%	2%	4%	8%
--------	-----	----	----	----	----

350) ③	11%	5%	79%	3%	3%
--------	-----	----	-----	----	----

351) ④	5%	5%	4%	74%	12%
--------	----	----	----	-----	-----

352) ①	76%	4%	4%	13%	2%
--------	-----	----	----	-----	----

☞ Zola ① 모겐소(갑)는 국제관계를 권력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파악한다.

353) ③	5%	5%	75%	9%	6%
--------	----	----	-----	----	----

354) ⑤

355) ④	3%	7%	3%	84%	3%
--------	----	----	----	-----	----

356) ③	3%	2%	90%	3%	1%
--------	----	----	-----	----	----

357) ②	15%	75%	3%	3%	3%
--------	-----	-----	----	----	----

358) ②	50%	28%	8%	4%	9%
--------	-----	-----	----	----	----

359) ③	4%	4%	84%	6%	2%
--------	----	----	-----	----	----

360) ④	10%	5%	19%	57%	10%
--------	-----	----	-----	-----	-----

361) ④	3%	13%	4%	67%	14%
--------	----	-----	----	-----	-----

☞ Zola 바나나 저격용 보기가 있음.

362) ④	9%	9%	6%	74%	2%
--------	----	----	----	-----	----

☞ Zola 선지 ④는 문장 바나나 저격용임. 단, 나머지 선지들은 지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63) ⑤	3%	9%	3%	11%	75%
--------	----	----	----	-----	-----

☞ Zola 여러 입시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보기> 누이 오류라고 지적하였음. but Zola는 오류가 아니더라는 입장임.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두었음. 설명은 강의에서!

364) ②	15%	63%	11%	5%	6%
--------	-----	-----	-----	----	----

365) ②	13%	63%	16%	4%	4%
--------	-----	-----	-----	----	----

366) ④	9%	2%	4%	71%	14%
--------	----	----	----	-----	-----

367) ⑤	13%	18%	14%	5%	52%
--------	-----	-----	-----	----	-----

☞ Zola 갑-모겐소, 을-칸트 ⑤ 모겐소는 동맹(세력균형의 방법 중 하나임), 칸트는 평화 연맹이나 평화 조약 등의 방법이 비폭력적 수단에 해당함.

368) ⑤	13%	10%	5%	15%	57%
--------	-----	-----	----	-----	-----

☞ Zola 문항 난이도에 비해 정답률이 낮음. 이 때 생운이 어려워서 막판에 멘탈이 깨진 분들이 많은 듯.

369) ③	3%	3%	90%	3%	2%
--------	----	----	-----	----	----

370) ③	7%	5%	79%	3%	3%
--------	----	----	-----	----	----

371) ②	2%	72%	15%	5%	5%
--------	----	-----	-----	----	----

372) ①	49%	4%	5%	37%	5%
--------	-----	----	----	-----	----

373) ①	63%	12%	14%	2%	9%
--------	-----	-----	-----	----	----

374) ③	3%	1%	90%	4%	2%
--------	----	----	-----	----	----

375) ⑤	5%	5%	5%	2%	83%
--------	----	----	----	----	-----

376) ④

4%	22%	11%	44%	19%
----	-----	-----	-----	-----

☞ Zola 선지 ⑤가 문제가 된다. 내용(개념) 확인은 내용 강의에서 반드시 할 것. 그러나 선지 ⑤가 문제가 되어도 시험장에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되었다. 이유는 문제 풀이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377) ①

49%	11%	9%	16%	14%
-----	-----	----	-----	-----

378) ④

7%	9%	3%	75%	6%
----	----	----	-----	----

379) ④

5%	6%	6%	75%	5%
----	----	----	-----	----

380) ①

66%	2%	18%	7%	7%
-----	----	-----	----	----

☞ Zola 제시문을 앞 부분만 보고는 틀린 바나나들이 있음. 제시문을 끝까지 읽고 판단을 하길 바람.

381) ③

12%	6%	66%	7%	10%
-----	----	-----	----	-----

382) ④

3%	2%	12%	79%	4%
----	----	-----	-----	----

383) ③

6%	15%	55%	9%	15%
----	-----	-----	----	-----

☞ Zola ㄱ, ㄴ은 바나나 선지에 가까움. 틀린 분들은 강의 확인 반드시 할 것. 바나나 제거해야 함!

384) ①

72%	3%	3%	15%	8%
-----	----	----	-----	----

385) ⑤

5%	5%	22%	11%	57%
----	----	-----	-----	-----

386) ②

3%	75%	2%	17%	3%
----	-----	----	-----	----

387) ㄱ, ㄷ

☞ Zola 공격적인 사회(무법 국가)가 처음 등장하는 문제임.

388) ③

4%	9%	58%	10%	19%
----	----	-----	-----	-----

☞ Zola [정답] ㄷ. 롤스에 따르면 원조는 차단점이 있어야 한다. ㄴ. 싱어에 따르면 원조의 득실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ㄱ. 노직에 따르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원조는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원조를 의무로 강요하는 것이 개인의 소유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ㄴ. 롤스는 원조를 통해 자원 분포의 우연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 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389) ⑤

4%	6%	8%	7%	76%
----	----	----	----	-----

390) ④

4%	4%	7%	78%	8%
----	----	----	-----	----

391) ③

12%	4%	59%	5%	20%
-----	----	-----	----	-----

☞ Zola 시험장에서는 'ㄱ'을 제낄 수 있는 지식(개념)이 있어야 함. 율이 싱어, 공리주의자임을 안다면 ㄷ은 공리주의 개념적인 득해로 제낄 수 있음. 그러면 답이 나옴.

392) ③

3%	8%	60%	6%	23%
----	----	-----	----	-----

393) ③

27%	10%	56%	5%	2%
-----	-----	-----	----	----

☞ Zola (1) 공리주의 개념 활용으로 선지 조합에서 답을 고를 수 있음. (2) ㄷ 선지가 국어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음.



Zola [758219] · MS 2017 · 쪽지

2024-09-11 17:17:16 조회수 2,036

[Zola] 이거 국어로 풀리지 않나요??(개념 말고 국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30636>

생운 감사인데....국어에 글 올려서 죄송요...

율 :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율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

* 율 사상가는 공리주의자임.

ㄷ. 율 :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OX

↓↓↓↓↓↓↓↓



Zola · 758219 · 09/14 16:01 · MS 2017

비교, 원조 유보 vs. 살인

차이점. 원조 유보가 살인을 의도하는 것은 아님

공통점. 둘 다 결과는 나쁨(도덕적으로 비추한다는 의미일 듯)

결론. 원조 유보와 살인은 의도는 달라도 결과는 같다는 점에서 모두 비도덕적이다.

추론.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도덕 판단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으로부터 비교-추론 가능하지 않을까요????

394) ③

9%	4%	44%	31%	12%
----	----	-----	-----	-----

☞ Zola 공리주의 개념 활용으로 선지 조합에서 답을 고를 수 있음.



서울대 사회교육과 수석(졸) 강사의 콘텐츠 보물 창고